

제29회 서울신학포럼 학위논문 발표회 (2021년 8월 24일)

‘참 선지자가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 예레미야 26-45장의 수사학적 연구

고대곤 박사(Ph.D. Dallas Theological Seminary 구약, 성락성결교회 부목사)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마소라 본문의 예레미야 26-45장(칠십인역 32-51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1) 26-29장, (2) 30-33장, (3) 34-45장.¹ 예레미야 26-29장과 34-45장은 산문 내러티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내러티브들은 여호야김왕의 통치 기간부터 예루살렘의 멸망 이후의 시간까지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루며 시간 순서에 따라 배열되어 있지 않다. 예레미야 26-29장과 34-45장의 중심 주제들은 유다 백성들의 불순종, 하나님의 심판, 예레미야와 유다 백성들의 대립, 예레미야의 예언 사역의 정당성(the vindication of Jeremiah's prophetic ministry) 등이다. “위로의 책”이라 불리는 예레미야 30-33장은 운문 계시들(poetic oracles)과 산문 내러티브들로 구성되어 있다. 예레미야 30-33장은 하나의 주제에 집중하는데 그것은 “심판의 시간 후에 찾아올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이다.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은 예레미야 30-33장 전반에 걸쳐서 반복된다.

예레미야 26-45장의 산문 내러티브들과 운문 계시들은 어떤 원리에 의해서 배열되었는가? 예레미야 26-29장과 34-45장의 내러티브들은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예레미야 26-29장과 34-45장의 내러티브들과 하나의 주제에 집중하는 “위로의 책”(예레미야 30-33장)은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예레미야 26-45장의 내러티브들과 희망의 메시지들의 의미와 강조점을 더욱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는 예레미야 26-45장의 문학적 구조에 대해 논하며 위에서 언급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갈 것이다. 본 연구는 “예레미야의 예언 사역의 정당성”이라는 주제는 예레미야 26-29장과 34-45장을 하나의 덩어리로 묶는 주제이고, 이 장들의 내러티브들은 예레미야가 신뢰할 만한 선지자임을 보여줌을 통해 예레미야 30-33장에 계시된 희망의 메시지를 지지함을 논증할 것이다.

2. 연구방법

구약학자 제임스 물렌버그(James Muilenburg)는 1968년 미국 버클리에서 열린 SBL모임의 회장연설에서 성경본문의 전형적인 요소들보다는 독특한 특성들에 대해 집중하는 하나의 성경 연구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그는 그 방법론을 “수사학 비평”(rhetorical criticism)이라고 칭했으며 성경

¹ 많은 학자들이 예레미야서를 1-25장, 26-45장, 그리고 46-51장의 세 부분으로 구분한다. 주제적, 문체적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46-51장이 한 부분임은 자명하다. 26-45장의 두드러진 전기적 문체의 사용, 25장에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의 23년간의 사역을 회고하는 점, 1장과 25장의 언어적 연관성, 26장이 27-45장에 등장할 중심주제들을 암시하는 점은 26-45장이 하나의 독립된 섹션임을 지지한다.

본문에 대한 양식 비평적 접근을 보완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주장했다.² 물렌버그는 해석자가 성경 본문의 장르적 특성뿐만 아니라 구조적, 문체적 특징을 분석할 때 저자의 생각과 의도 그리고 본문의 의미와 강조점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음을 말했다.³ 물렌버그의 연설 이후 성경본문에 대해 기본적으로 공시적인 접근을 하는 수사학 비평은 구약성경 연구의 주요 방식들 중 하나가 되었다.

물렌버그와 그를 따르는 해석자들의 이러한 접근에서 “수사학 비평”(rhetorical criticism)과 “문학 비평”(literary criticism)의 확실한 구분을 찾기가 힘들다. 최근 몇 학자들이 물렌버그의 방법론을 “수사학 비평”으로 부르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왔다. 그들은 “수사학”이라는 용어의 전통적인 의미를 고려할 때 “수사학 비평”이라는 이름은 저자, 본문, 청중(독자)의 관계 그리고 본문의 “설득”의 의미를 갖는 요소들에 대한 분석이 수반된 연구방법에 적합하다고 주장한다.⁴

본 연구는 수사학 비평 방법론을 사용해 예레미야 26-45장 전체를 분석할 것이다. 본 연구는 먼저 최종적 형태의 성경 본문의 독특한 특성들을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 본문에서 청중(독자)을 설득하기 위해 사용된 요소들을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문학적 연구는 예레미야 26-45장의 최종 편집자(들)가 그(들)의 청중(독자)을 설득하기 위해 사용한 전략들을 드러낼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물렌버그의 성경 본문에 대한 접근법과 “수사학”의 전통적인 정의를 강조하는 학자들의 성경 본문에 대한 접근법이 교차한다. 본 연구는 예레미야 26-45장의 수사학적인 분석을 통해 예레미야 26-29장과 34-45장의 공통적인 목적을 드러내고 의도적인 편집활동들에 의해 창조된 예레미야 26-45의 문학적 통일성을 밝힐 것이다.

II. 예레미야서에 드러난 선지자의 예언 사역의 정당성

예레미야서는 책 전반에 걸쳐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 사역이 합법적인 것임을 나타낸다. 본 연구가 집중하는 26-45장을 제외한 장들에서 예레미야의 사역의 타당성이 표현되는 부분들은 다음과 같다.

예레미야 1:4-19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묘사하는 예레미야 1:4-19은 구약성경의 다른 소명 내러티브들과 마찬가지로 선지자의 야훼의 대언자로서의 정당성을 드러낸다. 예레미야서는 첫 번째 장부터 예레미야의 야훼의 선지자로서의 권위를 선언한다. 모세, 기드온, 이사야, 에스겔의 소명 내러티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역자로 부르실 때의 주변 상황들을

² James Muilenburg, “Form Criticism and Beyond,”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88 (1969): 1–18.

³ *Ibid.*, 5.

⁴ Cf. Yehoshua Gitay, “Rhetorical Criticism,” in *To Each Its Own Meaning: An Introduction to Biblical Criticisms and Their Application*, ed. Stephen R. Haynes and Steven L. McKenzie (Louisville: John Knox, 1993), 136; Michael V. Fox, “The Rhetoric of Ezekiel’s Vision of the Valley of the Bones,” *Hebrew Union college Annual* 51 (1980): 2–3; Ellen Davis Lewin, “Arguing for Authority: A Rhetorical Study of Jeremiah 1:4–19 and 20:7–18,”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32 (1985): 105; Aristotle, *Rhetoric*, trans. W. Rhys Roberts, Modern Library of the World’s Best Books (New York: Modern Library, 1954), 1.1.1355b.

묘사하는 것과는 달리(출 3:1-9; 삿: 6:7-24; 사 6:1-13; 겔 1:1-2:10), 예레미야의 소명 내러티브는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예레미야의 소명 내러티브는 다소 급작스럽게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1:4) 라는 말과 함께 시작된다. 이러한 문학적 특성은 예레미야의 소명 내러티브가 예레미야가 야훼의 부르심을 받은 참 선지자임을 보이는 데에 집중하고 있음을 나타낸다.⁵

5절은 야훼가 예레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그를 선지자로 선택하였음을 말한다. 5절에서 예레미야의 사역의 정통성은 유사한 의미를 가진 명사들인 **בטן**(“배”)과 **רחם**(“모태”)의 사용, 전치사구 **בטרם**(“전에”)의 반복, 그리고 야훼가 예레미야를 그의 대언자로 선택하였음을 표현하는 동사들인 **ידעתך**(“내가 너를 알았다”), **הקדשתך**(“내가 너를 성별하였다”), **נתתיך**(“내가 너를 지명하였다”)의 사용을 통해 강조된다. 6절은 5절에 기록된 야훼의 말씀에 대한 예레미야의 반응을 다룬다. 6절에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사역적인 역량의 부족을 말하며 야훼의 부르심을 거절한다. 예레미야의 부정적인 반응은 예레미야의 사역의 정통성을 보여준다.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된 것이 그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기 때문이다.⁶ 7절에서 야훼는 예레미야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 명령은 예레미야가 그 자신의 말이 아닌 야훼의 말씀만을 전하는 선지자임을 나타낸다.⁷

8절에서 야훼는 예레미야에게 선지자로서 사역하는 동안 그의 청중들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명하며 그가 예레미야와 함께 하고 그를 구원할 것임을 약속한다. 8절의 야훼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편이고 예레미야를 거절하는 사람들의 대적임을 보여준다. 9절은 야훼의 상징적인 행동을 기록한다. 야훼는 그의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의 입에 댄다. 그리고 나서 그가 그의 말을 그의 입에 두었다고 선언한다. 9절에 기록된 야훼의 행동과 말은 예레미야의 말은 곧 야훼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또한 9절의 야훼의 표현(“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은 신명기 18장 18절의 야훼의 약속(“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을 떠올리게 한다.⁸ 9절의 야훼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참 선지자임을 드러낸다. 11-12절에 기록된 야훼와 예레미야의 대화에서 야훼는 예레미야를 포함한 그의 종들이 말한 예언들이 결국 성취될 것임을 강조한다.⁹ 18-19절에서 야훼는 그가 예레미야에게

⁵ Cf. Peter C. Craigie, Page H. Kelley, and Joel F. Drinkard Jr., *Jeremiah 1–25*, Word Biblical Commentary 26 (Dallas: Word Books, 1991), 8.

⁶ Cf. William Lee Holladay, *Jeremiah 1: A Commentary on the Book of the Prophet Jeremiah, Chapters 1–25*, Hermeneia (Philadelphia: Fortress, 1986), 45.

⁷ Cf. Norman C. Habel, *Jeremiah, Lamentations*, Concordia Commentary (St. Louis: Concordia, 1968), 308.

⁸ Cf. Winfried Thiel, *Die deuteronomistische Redaktion von Jeremia 1–25*, Wissenschaftliche Monographien zum Alten und Neuen Testament 41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73), 67–68.

⁹ 11-12절의 예레미야가 본 환상에 관한 기록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묘사하는 4-11절 바로 뒤에 위치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2절의 “내 말”은 야훼께서 부르신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들이 아니라 앞으로 예레미야가 선포할 예언들만을 의미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Jack R. Lundbom, *Jeremiah 1–20: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nchor Bible 21A (New York: Doubleday, 1999), 235을 보

사역을 감당해 낼 수 있는 힘을 줄 것이며 그를 그의 대적들로부터 지켜줄 것임을 약속한다.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은 다시 한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신뢰할 만한 선지자임을 보여준다.

예레미야의 고백들

구약의 다른 선지서들과는 달리 예레미야서는 선지자의 야훼를 향한 자신의 부르심에 대한 개인적인 항의들과 그것들에 대한 야훼의 반응을 담고 있는 부분들을 포함한다(11:18-12:6; 15:10-21; 17:12-18; 18:18-23; 20:7-18). “예레미야의 고백들”(Confessions of Jeremiah)이라 불리는 이러한 독특한 단락들에서도 예레미야의 예언 사역의 정당성이 드러난다. 많은 학자들이 예레미야의 고백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사적인 말들이며 그의 공적인 예언 사역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다.¹⁰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예레미야의 고백들이 예레미야의 사역기간 동안 그의 예언 사역의 정통성을 증명하기 위해 공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믿는다.¹¹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자료들을 통해 예레미야의 고백들이 사적인 것이었는지 예레미야 당시에 공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예레미야서의 최종 편집자(들)가 본래 사적인 목적으로 쓰여진 글들을 그(그들)의 독자들에게 예레미야의 예언 사역의 정당성을 보여주기 위해 책에 포함시켰을 가능성도 있다.

예레미야서의 다섯 개의 고백들은 모두 예레미야가 믿을 만한 선지자임을 보여주는 말들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예레미야의 두 번째 고백(15:10-21)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임을 표현한다. 15장 10절에서 예레미야는 그가 사람들에게 잘못된 일이 없으며 그가 고난을 받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15절에서 예레미야는 그가 주를 위해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다고 말한다. 예레미야의 이 고백은 그가 주께서 주신 사명에 헌신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음을 함의한다. 16절에서 예레미야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고 말한다. 예레미야의 이 고백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참 선지자임을 나타낸다. 같은 절에서 또한 예레미야는 야훼의 말씀은 그의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고 그가 야훼께 속한 자라고 언명한다(נקרא שמך עלי). 17절에서 예레미야는 그가 야훼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누리는 즐거움을 누리지 않았고 다른 이들로부터 고립되었다고 말한다. 이 고백은 예레미야가 야훼의 신실한 종임을 보여준다. 같은

라.

¹⁰ John Bright, “Jeremiah’s Complaints: Liturgy or Expressions of Personal Distress?” in *Proclamation and Presence: Old Testament Essays in Honor of Gwynne Henton Davies*, ed. John I. Durham and J. R. Porter (Richmond, VA: John Knox, 1970), 189–214; Thompson, *The Book of Jeremiah*, 91; Nicholson, *The Book of the Prophet Jeremiah, Chapters 1–25*, 112–14; Walter Baumgartner, *Die Klagegedichte des Jeremia*, Beihefte zur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32 (Giessen: A. Töpelmann, 1917), 86; John MacLennan Berridge, *Prophet, People, and the Word of Yahweh: An Examination of Form in the Proclamation of the Prophet Jeremiah*, Basel Studies of Theology 4 (Zurich: EVZ, 1970); John Skinner, *Prophecy and Religion: Studies in the Life of Jeremia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30), 201–30을 보라.

¹¹ Lewin, “Arguing for Authority,” 106–17; Jon L. Berquist, “Prophetic Legitimation in Jeremiah,” *Vetus Testamentum* 39 (1989): 135–37; David J. A. Clines and D. M. Gunn, “Form, Occasion and Redaction in Jeremiah 20,”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88 (1970): 398–402; Kathleen M. O’Connor, *The Confessions of Jeremiah: Their Interpretation and Role in Chapters 1–25*,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Dissertation Series 94 (Atlanta: Scholars Press, 1987), 85–92을 보라.

절에서 또한 예레미야는 자신이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 거룩한 분노를 가진 하나님의 참 선지자라고 말한다. 18절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נַחַל מִים לֹא נִאֲמָנוּ)와 비교한다. 예레미야의 이러한 당돌한 말은 그가 야훼의 부르심을 받은 믿을 만한 선지자임을 함의한다. 예레미야는 이 말을 통해 그를 자신의 대언자로 선택한 야훼는 그를 돌봐줘야 할 책임이 있음을 표현한다.¹²

예레미야의 솔직한 고백들에 대한 야훼의 응답을 담고 있는 19-21절 또한 예레미야의 예언 사역의 정통성을 지지하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19절에서 야훼는 예레미야에게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라고 명령한다. 야훼의 이 명령은 예레미야가 자신의 말이 아닌 야훼의 말씀을 전해왔으며 유다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에 귀를 기울여야 함을 나타낸다. 20절에서 야훼는 그가 예레미야를 견고한 놋 성벽과 같이 강하게 만들어 그의 청중들 앞에 세울 것이며 그의 핍박자들로부터 그를 지켜줄 것임을 약속한다. 21절에서 야훼가 예레미야에게 적대적인 이들을 “악한 자”(רְעִים)라고 지칭하는 것 또한 주목할 만하다.

예레미야 19:14-20:6

예레미야 19:14-20:6의 산문 내러티브는 3인칭 시점에서 기록되었다. 예레미야와 그의 예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한 제사장간의 대립을 다루는 이 내러티브는 예레미야의 예언 사역의 정통성을 지지하는 내용들을 포함한다. 20:4-5에서 야훼는 그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유다 사람들을 심판할 것임을 단언한다. 6절에서 야훼는 예레미야를 대적한 바스홀과 그의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그곳에서 죽을 것임을 약속한다. 야훼의 이러한 약속은 예레미야는 야훼의 참 선지자이며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일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됨을 보여준다. 이 내러티브에서 예레미야에 대한 적개심은 곧 야훼에 대한 적개심으로 간주된다. 6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야훼는 다가올 재앙에 관한 예레미야의 참된 예언들이 아닌 바스홀의 거짓 예언을 믿은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선언한다.

예레미야 23:9-40

예레미야 23:9-40은 일관적으로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서 다룬다. 이 단락 역시 예레미야의 예언 사역의 정당성을 지지하는 내용들을 포함한다. 23:9-10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들 사이의 깨어진 관계로 인해 마음이 심하게 상했음을 표현한다. 이러한 슬픔의 표현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과 언약 백성들 사이의 진실한 중재자임을 보여준다. 10절에 기록된 거짓 선지자들의 부정한 힘의 사용에 대한 예레미야의 비난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지자로서의 권위를 정당하게 사용했음을 함의한다. 13-14절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메시지와 상충되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과 비교한다. 14, 17, 22, 32절에서 야훼는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에서 돌이키는 데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지적은 예레미야의 사역은 거짓 선지자들의 사역과는 달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익한 것임을 나타낸다. 14절과 26절에서 예레미야의 메시지와 다른

¹² Cf. O'Connor, *The Confessions of Jeremiah*, 42.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들의 말은 “거짓”(רָשָׁע)이라고 불린다. 이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진실임을 표현한다. 16, 21, 26절에서 야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들의 말을 전한 거짓 선지자들을 비난한다. 야훼의 이러한 비난은 예레미야가 자신의 말이 아닌 오직 야훼로부터 온 진리만을 전했음을 드러낸다. 21절에서 야훼는 그가 거짓 선지자들을 보낸 적이 없다고 단언한다. 야훼의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임을 나타낸다. 27절에서 야훼는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을 잊게 만든다고 지적한다. 야훼의 이러한 지적은 예레미야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을 기억하게 하는 사역을 하고 있음을 함의한다.

에필로그(예레미야 52:1-34)

예레미야서의 에필로그(예레미야 52:1-34) 또한 예레미야의 예언 사역의 정당성을 지지하는 내용들을 포함한다. 예레미야 52:1-30의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기록은 유다 백성들에게 임하게 될 심판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들이 성취되었음을 나타낸다. 이 기록을 통해 예레미야의 말들이 진실이었음이 증명된다. 34절의 여호야긴 왕의 바벨론에서의 죽음에 대한 기록은 22:24-26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여호야긴 왕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준다.

예레미야서는 바벨론에 사로잡혀 간 여호야긴 왕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짧은 역사 기록(52:31-34)과 함께 끝을 맺는다. 예레미야서의 편집자(들)는 아마도 언약 백성들에게 여전히 희망이 있음을 표현하기 위해 이 역사 기록을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예레미야서의 편집자(들)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윗의 자손의 명예로운 위치로의 복귀에 대한 이 기록을 통해서 바벨론에 머물고 있었던 독자들에게 예레미야의 예언들, 특별히 그의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의 회복과 다윗 왕조의 재건에 관한 예언들을 상기시키려 하였을 것이다.¹³ 31-34절의 희망의 메시지는 예레미야의 예언들이 진실이었음을 증명하는 1-30절의 역사 기록의 의해 설득력을 얻게 된다. 예레미야서의 편집자(들)는 아마도 이러한 전략적인 배치를 통해서 예레미야의 심판의 예언들이 성취된 것처럼 그의 회복의 메시지들도 성취될 것임을 강조하려 했을 것이다.¹⁴ 이와 비슷한 설득을 위한 전략이 본 연구가 집중하는 예레미야 26-45장에서도 발견된다. 예레미야 26-29장 그리고 34-45장의 내러티브들은 예레미야가 신뢰할 만한 야훼의 대언자임을 보여주면서 30-33장의 구원의 메시지를 설득력이 있게 만들어 준다.

III. 예레미야 26-29장과 34-45장의 수사학적 분석

본 글의 세 번째 섹션에서는 예레미야 26-29장과 34-45장을 수사학적으로 연구할 것이다. 그 연구는 예레미야 26-29장과 34-45장의 각 단락의 독특한 특징들과 예레미야의 야훼의 선지자로서의 정통성이 표현되는 방식에 주목할 것이다. 그것은 또한 예레미야 26-45장과 34-

¹³ John Bright, *Jeremiah: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nchor Bible 21 (Garden City, NY: Doubleday, 1965), 370을 보라.

¹⁴ Cf. F. B. Huey, *Jeremiah, Lamentations*, New American Commentary 16 (Nashville: Broadman, 1993), 370.

45장이 30-33장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다룰 것이다. 더하여 예레미야 26-45장의 최종 편집자(들)의 설득을 위한 기법들과 최종 형태의 본문에 대한 원독자들의 예상되는 반응들에 관해서도 논의할 것이다. 예레미야 26-29장과 34-45장의 수사학적 분석은 26-29장과 34-45장의 내러티브들은 하나의 공통된 목적(예레미야의 예언 사역의 정당성 입증)을 가지고 있고 예레미야 30-33장의 희망의 메시지를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각 단락의 구체적인 분석에 앞서 예레미야 26-29장, 34-39장, 45장에 기록된 예루살렘의 함락에 관한 예레미야의 예언들과 관련된 해석학적 이슈를 먼저 논의할 것이다.

예루살렘 함락에 관한 예언을 통한 선지자의 정통성 입증

예레미야 26-29장, 34-39장, 45장의 내러티브들은 예루살렘 멸망 이전의 예레미야의 삶과 사역과 관련된 사건들을 기록한다. 이 내러티브들에서 예레미야는 계속적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다. 본 연구는 예루살렘의 함락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다루는 내러티브들을 포함하는 단락인 예레미야 26-45장 안에 있는 예레미야 26-29장, 34-39장, 45장의 예레미야의 예언들은 구약의 선지서들에 기록된 다른 예언들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음을 주장한다. 다른 예언들과는 달리 예레미야 26-29장, 34-39장, 45장의 예루살렘의 운명에 관한 부정적인 예언들은 선지자의 사역의 정통성을 증명한다. 예레미야 26-45장의 최종 편집자(들)와 그것의 원독자들의 시간적인 관점에서는 예루살렘의 함락에 관한 예레미야의 말들은 이미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다. 현대의 독자들에게는 예레미야 26-29장, 34-39장, 45장의 심판의 예언들이 예레미야의 예언 사역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말들이라고 느껴지지 않지만, 예루살렘의 멸망을 직접 경험했거나 적어도 그것이 자신들의 삶에 큰 영향을 준 편집자(들)와 원독자들에게는 그 예언들 자체가 예레미야의 사역의 정통성을 강하게 지지하는 말들이었을 것이다. 더하여 예레미야 39:1-14에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과정이 묘사되어 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26-29장, 34-39장, 45장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심판에 관한 예언들과 예레미야 39:1-14의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역사 기록은 서로 연결되어 예레미야의 예언 사역의 정당성을 입증한다.

예레미야 26:1-24의 수사학적 분석

26:2절에서 야훼는 예레미야에게 그가 전하라고 명하는 모든 말들을 전하고 한 마디도 감하지 말라(אל תגרע דבר)고 명령한다. 2절의 야훼의 명령과 7-8절에 기록된 그 명령에 대한 예레미야의 순종의 기록은 예레미야가 야훼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전하는 참 선지자임을 나타낸다. 3절에서 야훼는 예레미야에게 언약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들을 경청하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킬 것을 희망한다고 말한다. 이 구절에서 예레미야는 언약 백성들과 그들의 하나님 사이의 참된 중재인으로서 그려진다. 4-5절에 기록된 언약 백성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는 예레미야의 말들은 예레미야 30-33장에 기록된 먼 미래에 있을 언약 백성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예언을 연상케 한다. 4-5절의 예레미야의 말들은 독자들로 하여금 30-33장의 예레미야의 희망의 예언들을 들을 준비가 되게 한다.

6절에서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은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고 예언한다. 예레미야 26-45장의 최종 편집자(들)와 원독자들은 6절의 예레미야의 예언들이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음을 잘 알고

있었다. 열왕기하 25:8-9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열아홉째 해에 바벨론 왕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과 왕궁을 불로 태웠음을 기록한다. 예레미야 26-45장의 원독자들은 6절의 예레미야의 심판의 예언을 통해 성전 파괴와 관련된 그들 자신의 또는 그들의 조상들의 충격적인 경험들을 떠올렸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예레미야의 말들은 효과적으로 예레미야의 예언 사역의 정통성을 입증하고 30-33장의 예레미야의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들을 듣기 위한 준비가 되게 하였을 것이다.

12절에서 예레미야는 성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를 보내 그들이 들은 모든 말을 예언하게 하신 이는 야훼임을 밝힌다. 그러므로 12절은 다시 한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참 선지자임을 보여준다. 13절에서 예레미야는 성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훼께서 그들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실 수 있도록 그들의 길과 행위를 고칠 것을 권한다. 예레미야는 대담하게 그의 목숨을 위태롭게 만든 심판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선포한다. 13절에서 예레미야는 야훼의 말씀의 전달자로서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헌신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그려진다. 이 구절은 또한 예레미야가 언약 백성들과 야훼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 애쓰는 참된 중개자임을 나타낸다.

3절에서 야훼는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의 심판의 메시지의 궁극적인 목적(언약 백성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것)을 계시한다. 그리고 나서 4-12절에서 예레미야의 심판의 메시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레미야의 청중들에게 숨겨지고, 13절에서 마침내 그들에게 계시된다. 이러한 수사학적인 계시(예레미야에게 계시됨), 숨겨짐(예레미야의 청중들에게 숨겨짐), 계시(예레미야의 청중들에게 계시됨)는 언약 백성의 회개, 순종, 구원의 주제들을 효과적으로 강조한다. 그리고 그것들은 독자들로 하여금 언약 백성의 회개, 순종, 구원의 주제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30-33장을 읽을 준비가 되게 한다.

예레미야 27:1-29:32의 수사학적 분석

예레미야 27-29장은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바벨론이 유다와 유다 주변의 국가들을 지배하는 기간이 길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예레미야의 대립이다. **קרש**(“거짓”)는 27-29장의 핵심 단어이다. 이 단어는 각 장에 거짓 예언들과 관련해서 등장한다(27:10, 14, 15, 16; 28:15; 29:9, 21, 23, 31). 27-29장은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참 선지자임을 보여준다.

27:8에서 야훼는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않는 백성과 나라는 칼과 기근과 염병으로 심판 받게 될 것이라고 선언한다. 8절의 예레미야의 예언은 예레미야 39:1-4의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은 유다의 멸망에 관한 기록을 통해 그 진실성이 입증된다. 8절의 예레미야의 예언과 39:1-4의 그것의 역사적인 성취에 대한 기록은 서로 연결되어 예레미야의 사역의 진정성을 드러낸다. 10절에서 야훼는 예레미야와는 다르게 나라들의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자들의 예언을 “거짓”(קרש)이라고 정의한다. 야훼의 이러한 말씀은 예레미야가 거짓이 아닌 진실을 말하는 선지자임을 함의한다. 13절에서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만약 유다가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유다의 왕은 그의 백성들과 함께 칼과 기근과 염병으로 죽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이 예언 또한 예레미야 39:1-14의 예루살렘의 함락에 관한 기록을 통해 그 진실성이

입증된다. 15절에서 예레미야는 만약 시드기야 왕과 그의 백성들이 바벨론 왕에게 항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면 야훼께서 그와 그의 백성들을 유다 땅 밖으로 내쫓고 타국에서 죽게 할 것이라고 예언한다. 예레미야 26-45장의 최종 편집자(들)와 바벨론에 머물고 있었던 원독자들은 15절의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들이 진실이었음을 잘 알고 있었다. 예레미야 26-45장의 최종 편집자(들)와 원독자들에게 15절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부정적인 예견들은 30-33장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언약 백성의 회복에 관한 말들이 신뢰할 만하다고 느끼게 하였을 것이다.

17절에서 예레미야는 만약 언약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으면 예루살렘은 황무지(חֲרָבָה)가 될 것이라고 예언한다. 17절의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예레미야의 예언은 33:10-11의 예레미야의 예언과 연결점을 가지고 있다. 예레미야는 33:10-11에서 언약 백성들이 황폐하다고(חֲרָבָה) 말하는 예루살렘은 지난 날처럼 회복될 것이라고 말한다. 17절의 심판의 예언은 33:10-11의 희망적인 말들을 지지한다. 황무지가 된 예루살렘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 (또는 황무지가 된 예루살렘을 직접 목격한) 예레미야 26-45장의 최종 편집자(들)와 원독자들에게 17절의 예레미야의 말들은 예레미야의 사역의 정통성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예언이었을 것이다.

26장에서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의 회개와 야훼가 그들을 용서할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러나 27장에서 예레미야는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그는 오히려 유다가 오랜 시간 동안 바벨론의 다스림 아래 있게 되는 일은 피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26-27장은 언약 백성이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구원의 기회들을 점진적으로 잃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학적인 특성을 가진 26-27장은 언약 백성의 회개와 순종, 그리고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30-33장과 주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의 백성의 순종에 관한 26-27장의 말들은 독자들로 하여금 30-33장의 희망과 회복에 관한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들에 집중하게 만든다.

28:3-4에서 선지자 하나냐는 이 년 안에 바벨론 왕이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 간 예루살렘 성전 기구들과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바벨론으로 간 모든 포로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한다. 하나냐의 이러한 긍정적인 예언들은 성전 기구들이 속히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예언들(27:16)과 상충된다. 예레미야 26-45장의 최종 편집자(들)와 원독자들은 하나냐의 성전 기구들과 포로들에 관한 긍정적인 예언들이 성취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 3-4절에 기록된 하나냐의 예언의 말들은 예레미야 26-45장의 원독자들에게 유다의 미래에 관한 예레미야의 대적의 말들이 아닌 예레미야의 말들이 역사 속에서 진실임이 증명되었고 30-33장의 예레미야의 희망의 말들도 신뢰할 만한 것임을 상기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2-4절에서 하나냐는 바벨론의 유다 지배가 가까운 미래에 끝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다. 이 거짓 예언은 30-33장에 기록된 바벨론의 유다 지배가 먼 미래에 끝나게 될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참 예언과 상충한다. 하나냐의 거짓된 희망의 메시지는 독자들로 하여금 30-33장의 예레미야의 참된 희망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게 한다. 10-11절에서 하나냐는 다시 한 번 상징적인 행동과 함께 예레미야의 예언과 상충되는 예언을 한다. 하나냐의 예언 이후 예레미야가 하나냐의 말을 반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냐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난다 (11절). 시간이 지난 후에 예레미야는 야훼로부터 말씀을 받고 하나냐에게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12절). 11-12절에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말이 아닌 야훼의 말씀만을 말하는 참 선지자로서 묘사된다. 13-14절에서 야훼는 예레미야의 대적의 상징적인 행동은 의미 없는 것이며 바벨론이 유다를 포함한 여러 민족들을 지배하는 기간이 짧지 않을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선포한다.

15-16절에서 예레미야는 그의 대적 하나냐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한다. 예레미야는 먼저 야훼께서 하나냐를 그의 말씀의 전달자로 보낸 적이 없다고 단언한다. 예레미야의 이 말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참 선지자이며 언약 백성들은 그의 예언들을 믿어야 함을 나타낸다. 16절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냐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린다. 그는 야훼께서 곧 하나냐를 지면에서 제하실 것이라고 말한다. 16절의 하나냐가 받게 될 엄중한 심판에 대한 예레미야의 선언은 야훼께서 부르신 종인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잘못인지를 보여준다. 그것은 또한 언약 백성이 30-33장의 희망의 말들을 포함한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들에 귀를 기울여야 함을 나타낸다. 예레미야와 하나냐의 대립에 관해서 다루는 내러티브는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다는 역사 기록과 함께 끝을 맺는다. 이 역사 기록은 예레미야가 야훼가 선택한 그의 말씀의 대언자임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고 30-33장의 희망과 회복의 예언들의 신빙성을 높인다.

29:4-7에서 예레미야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들에게 편지를 보내 바벨론에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번성할 것을 권한다. 예레미야의 이러한 권면은 바벨론의 유다 지배가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그의 예언에 근거한다. 여전히 유다가 바벨론의 지배 아래 있는 상황에서 살고 있었던 예레미야 26-45장의 최종 편집자(들)와 원독자들은 바벨론의 유다 지배의 기간에 관한 예레미야의 예언은 정확했고 예레미야의 편지를 받은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권면에 귀를 기울여야 했음을 잘 알고 있었다. 바벨론에 머물고 있었던 예레미야 26-45장의 원독자들에게 4-7절의 예레미야의 말들은 바벨론의 유다 장악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이 참되었던 것처럼 30-33장의 먼 미래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에 관한 그의 예언들도 참된 것이라는 메시지를 수반하고 있었을 것이다.

8-9절에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유다가 바벨론의 지배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말라고 말한다. 8-9절의 예레미야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비판은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임을 나타낸다. 10-14절에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머물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속히 언약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거짓 예언을 경계할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먼 미래에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예언한다. 급작스럽게 등장한 예레미야의 긍정적인 예언은 예레미야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판에만 관심이 있는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의 백성들의 참된 회복을 말하는 선지자임을 보여준다. 10-14절의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들에게 회복을 있을 것이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생각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복이 속히 찾아올 것이라는 그들의 생각에 반대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10-14절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짧은 회복의 메시지는 언약 백성의 회개, 그들의 약속의 땅으로의 복귀, 그들의 번영이라는 주제들을 다룬다. 이 주제들은 29장에 이어지는 장들(30-33장)의 중심 주제들이다. 10-14절의 예레미야의 말들은 독자들로 하여금 “위로의 책”(30-33장)을 읽기 위한 준비가 되게 한다.

예레미야 34:1-22의 수사학적 분석

34:2에서 예레미야는 야훼께서 예루살렘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길 것이고 바벨론 왕은 그 도시를 불사를 것이라고 예언한다. 2절의 예레미야의 예언은 이 연구가 집중하는 단락, 예레미야 26-45장 안에서 예레미야가 진실을 말하는 야훼의 참 선지자임을 드러낸다. 예레미야 26-45장은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불태운 역사 기록(39:8)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3절에서 예레미야는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그가 바벨론 왕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말한다. 예레미야의 이 예언에 대한 성취 또한 예레미야 26-45장 안에서 찾을 수 있다. 예레미야 39:4-5는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바벨론 왕과 그의 군대)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 길을 따라 두담 셋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립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심문하였더라.” 2-3절에 기록된 가까운 미래에 예루살렘과 시드기야 왕에게 일어날 일들에 관한 예레미야의 예언들은 30-33장에 기록된 먼 미래에 언약 백성에게 일어날 일들에 관한 예레미야의 예언들이 신뢰할 만한 것임을 나타낸다. 1-7절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과 시드기야 왕에 관하여 야훼께 받은 모든 부정적인 예언들(כל הדברים האלה)을 빠짐없이 시드기야 왕에게 전했음을 기록한다. 1-7절의 내레이터는 예레미야를 그의 청자가 듣기에 불편한 말이라고 할지라도 가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야훼의 참 선지자로서 묘사한다.

15-16절에서 야훼는 동쪽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일에 대해서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은 노예 소유주들을 책망한다. 15-16절의 야훼의 말씀은 30-33장의 언약 백성들의 온전한 순종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들을 떠올리게 한다. 그것은 독자들로 하여금 30-33장의 긍정적인 말들을 되새기게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12-16절의 예레미야의 말들은 31:31-34의 예레미야의 예언과 연결점을 가지고 있다. 31:31-34에서 예레미야는 옛 언약이 실패했으며 심판의 때가 지난 후 야훼가 그의 백성들과 옛 언약과는 다른 새 언약을 맺을 것임을 말한다. 12-16절의 예레미야의 말들은 31:31-34의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에 관한 예레미야의 예언의 이해를 돕는다.

예레미야 35:1-19의 수사학적 분석

35:15에서 야훼는 그가 끊임없이 보낸 그의 종들이 전한 메시지를 듣지 않은 언약 백성들을 책망한다. 15절의 야훼의 말은 그가 보낸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지의 내용을 기록한다. 야훼의 선지자들은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והיטיבו מעלליכם) 행위를 고치고(שבו נא איש מדרכו הרע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ואל תלכו אחרי אלהים אחרים לעבדם)고 외쳤다. 15절에 기록된 야훼의 종들의 메시지는 예레미야 26-45장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메시지와 일맥상통한다. 예를 들어 26:1-6에서 야훼는 예레미야에게 유다 백성들이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ושובו איש מדרכו הרעה) 다가오는 심판을 피하도록 그의 말을 전하라고 명령한다. 26:13에서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야훼께서 그들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시도록 그들의 길과 행위를

고치라(ומעלליכם)고 권고한다. 36:6-7에서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유다 백성들이 각기 악한 길을 떠나도록(וישבו איש מדרכו הרעה) 성전에 가서 예언의 말들이 적혀 있는 두루마리를 읽으라고 말한다. 36:29에서 야훼는 바벨론 왕이 유다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그 땅에서 없애지게 할 것이라고 예언한 예레미야를 대적한 유다의 왕 여호야김을 책망한다. 44:1-6에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이 사람이 살지 않는 황무지가 된 이유는 유다 백성들이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לעבד לאלהים אחרים) 인해 하나님께서 노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15절에 기록된 야훼의 참 선지자들이 전한 말들은 예레미야가 야훼께서 보낸 참 선지자임을 드러낸다.

예레미야 36:1-32의 수사학적 분석

36:1-3에서 야훼는 예레미야에게 한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거기에 유다에 임박한 재앙에 관해서 기록하라고 명하면서 예레미야의 심판의 예언을 통해 언약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1-3절의 야훼의 말들은 30-33장에 기록된 심판의 때가 지난 후에 있을 언약 백성들의 회개와 구원에 관한 예레미야의 예언과 연관되어 있다. 1-3절의 야훼의 말들은 독자들로 하여금 30-33장의 희망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게 한다. 7절에서 예레미야는 바룩의 성전에서의 말씀 선포를 통해 언약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7절의 예레미야의 말은 예레미야가 야훼와 그의 백성들의 언약 관계의 회복을 갈망하는 참된 언약 중개인임을 드러낸다. 또한 그것은 예레미야가 그의 주님이 희망하는 것(언약 백성의 회개)을 함께 희망하는 야훼의 종임을 보여준다.

27-31절은 여호야김 왕이 야훼의 메시지가 담긴 두루마리를 불태운 후에 예레미야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다. 28절에서 야훼는 예레미야에게 또 다른 두루마리를 준비해서 불태워진 두루마리에 기록되었던 모든 말을 다시 기록하라고 명한다. 28절의 야훼의 명령은 여호야김 왕의 두루마리의 파기가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선포한 야훼의 말씀을 무력화할 수 없었음을 보여준다. 30-31절에서 야훼는 여호야김 왕의 자손들은 다윗의 왕위에 앉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한다.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유난히 적대적이었던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유난히 가혹한 심판을 받게 될 운명이 된다. 30-31절의 야훼의 여호야김 왕에 대한 심판의 기록은 예레미야가 야훼의 선택을 받은 선지자이며 언약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경청해야 함을 표현한다.

36장의 내러티브는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바룩에게 주고 바룩이 첫 두루마리에 기록된 모든 말들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다른 말들도 더했다는 역사 기록과 함께 끝난다. 이 역사 기록은 다시 한번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무효화가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예레미야 37:1-38:28의 수사학적 분석

37:2에서 내레이터는 시드기야 왕, 그의 종들, 그리고 유다의 백성들이 야훼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전하신 말씀(דברי יהוה אשר דבר ביד ירמיהו הנביא)에 순종하지 않았음을 단언한다. 2절의 내레이터의 말은 예레미야의 예언 사역의 정통성을 지지한다.

17-21절은 예레미야가 유다의 고관들에게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힌 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다른다. 시드기야 왕은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비밀스럽게(בסתר) 그가 야훼에게 받은 말씀이 있는지 묻는다 (17절 전반부). 긍정적인 예언의 메시지를 듣기를 간절히 원했던 시드기야 왕의 질문에 대해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라고 응답한다 (17절 후반부). 자신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왕을 불편하게 하는 예언의 메시지를 가감 없이 대담하게 전하는 예레미야에 대한 기록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전하는 참된 하나님의 대언자임을 보여준다.

18-19절에서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한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이다. 이 질문을 통해 예레미야는 그가 결백하며 야훼의 진리를 신실하게 선포함으로 인해 핍박을 받는 야훼의 종임을 표현한다. 두 번째 질문은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차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이다.¹⁵ 이 질문을 통해 예레미야는 그의 대적들의 바벨론의 유다 침략에 관한 예언들이 아닌 자신의 바벨론의 유다 침략에 관한 예언들이 진실이었음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음을 표현한다. 18-19절의 예레미야의 질문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들이 신뢰할 만한 것임을 드러낸다.

38:4에서 유다의 고관들은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가 임박한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유다 백성들의 평안(שלום)을 구하지 않고 재난(רעה)을 구한다고 말한다. 예레미야 26-45장의 최종 편집자(들)와 원독자들은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의 재난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평안을 구했음이 역사 속에서 증명되었음을 알고 있었다. 4절의 고관들의 말은 예레미야 26-45장의 원독자들에게 예레미야의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예언의 말들이 진실임이 입증되었고 30-33장의 그의 희망의 예언들이 믿을 만한 것임을 상기시키는 효과를 주었을 것이다. 7-13절은 예레미야가 왕궁 내시 에벳멜렉에 의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났음을 기록한다. 이 기록은 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가 선택한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보호하고 계심을 나타낸다. 이것은 또한 소명 내러티브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예레미야 1:8)을 떠올리게 한다.¹⁶

21-22절에서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만약 그가 바벨론 사람들에게 행복하기를 거절하면 유다 왕궁에 남아 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끌려갈 것이고 그 여자들은 시드기야 왕에게 “네 친구들이 너를 피어 이기고 네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라고 말할 것이라고 예언한다. 왕궁 여자들의 말에서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진 야훼의 말씀을 거절함으로 인해 진흙에 빠진 시드기야 왕은 7-13절에서 진흙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야훼의 참 선지자 예레미야와 극명하게 대조된다.

예레미야 39:1-18의 수사학적 분석

¹⁵ 예레미야의 두 번째 질문은 바벨론의 유다 침략에 관해 긍정적인 예언을 했던 선지자들이 그들의 예언이 성취되지 않자 거짓 선지자들의 처벌에 관한 모세의 법을 두려워하여 숨어서 지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Huey, *Jeremiah, Lamentations*, 331을 보라.

¹⁶ Louis J. Stulman, *Jeremiah*, Abingdon Old Testament Commentaries (Nashville: Abingdon, 2005), 310.

39:1-10은 예루살렘이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 함락되는 과정을 자세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묘사한다. 위에서 논의한 것처럼 39:1-10의 역사 기록은 본 연구가 집중하는 단락(26-45장)안에서 26-29, 34-39, 45장의 언약 백성에게 임박한 심판에 관한 예레미야의 예언들과 연결되어 예레미야가 진실을 말하는 선지자임을 설득력 있게 증명한다. 6-7절의 시드기야 왕의 몰락의 기록은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으로 위험한 일인지를 보여준다.

예레미야 26-45장이 히브리 성경의 선지서들의 다른 단락들과는 달리 선지자의 예언들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하는 긴 역사 기록(39:1-10)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예레미야 26-45장의 최종 편집자(들)가 예레미야의 선지자로서의 권위에 특별한 관심이 있었음을 드러낸다. 예레미야 26-45장의 최종 편집자(들)는 39:1-10의 긴 역사 기록을 포함시킴을 통해 포로로 끌려온 독자들에게 예레미야의 심판의 예언들이 역사 속에서 성취된 것처럼 30-33장에 기록된 그의 희망과 회복의 예언들도 결국에는 성취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을 것이다.

11-14절은 예레미야의 예언들이 성취되었을 때 예레미야가 감옥에서 풀려났음을 기록한다. 11-14절의 자신의 예언들이 실현된 후 자유를 얻은 예레미야는 4-7절의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의 말을 거부함으로 인해 사슬로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간 시드기야 왕과 대조된다. 17-18절에서 야훼는 예레미야의 목숨을 구해준 구스인 에벳멜렉의 구원을 약속한다. 18절에서 야훼가 예레미야의 예언 사역을 지지한 에벳멜렉을 “야훼를 신뢰하는 사람”으로 지칭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39장 안에서 예레미야의 예언 사역을 지지한 이방인 에벳멜렉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15-18절)과 예레미야의 예언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언약 백성들의 하나님의 심판(1-10절)이 대비를 이룬다.

예레미야 40:1-44:30의 수사학적 분석

40:2-5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과 예레미야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다. 예루살렘의 함락 뒤 느부사라단은 유다의 멸망의 근본적인 이유에 관한 통찰력 있는 신학적인 논평을 내놓는다.¹⁷ 느부사라단은 야훼께서 유다 땅에 재난을 선포하셨고 유다 백성들이 야훼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고 말한다. 느부사라단의 말은 불순종한 유다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심판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이 야훼로부터 왔고 그것이 성취되었음을 나타냄으로써 예레미야의 예언 사역의 정당성을 지지한다. 이 바벨론 군대의 리더는 유다 백성들의 리더들이 처음부터 인식하지 못했던 사실, 곧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라는 것을 인식했다.¹⁸ 구약의 선지서들에서 선지자의 사역의 정당성을 지지하는 이방인의 말을 포함한 단락을 찾기가 쉽지 않다. 예레미야의 26-45장의 최종 편집자(들)는 느부사라단의 말을 단락 안에 포함시킴을 통해 예레미야의 야훼의 대언자로서의 권위를 강조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40:7-12는 유대인들이 각처에서 그들의 땅으로 돌아왔고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았다고 기록한다. 40:7-12의 역사 기록은 30-33장에서 예레미야가 회복의 때에 언약 백성들은 그들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실 것이라고 말한 예언들을 연상케 한다. 7-12절의 역사 기록은 독자들로 하여금 30-33장의 예레미야의 낙관적인 예언들을 상기시킨다. 41:4-9는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의 도시들에서 온 무고한 애도자들을

¹⁷ Robert B. Chisholm Jr., *Handbook on the Prophets* (Grand Rapids: Baker, 2002), 204.

¹⁸ Stulman, *Jeremiah*, 319.

살해했음을 기록한다. 이 기록과 31:2-22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에 관한 예레미야의 예언은 연결점을 가지고 있다. 4-9절의 기록은 독자들로 하여금 31:2-22의 예레미야의 희망의 말들을 생각나게 한다.

43:1에서 내레이터는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에게 전하라고 명한 모든 말씀을 전했다고 말한다. 1절의 내레이터의 말은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 전에 그러했던 것처럼 유다의 멸망 후에도 계속해서 자신의 말이 아닌 야훼의 말씀을 가감 없이 전하는 야훼의 참된 대언자였음을 나타낸다. 2절에서 내레이터는 요하난을 비롯한 모든 오만한 자들(יְשׁוּנֵי הַדָּבָר)이 예레미야가 거짓 예언을 했다고 비방하고 야훼께서 그를 보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적이 없다고 주장했음을 말한다. 2절에서 내레이터가 예레미야의 예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오만한 자들”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2절의 내레이터의 말은 예레미야는 야훼의 참 선지자이며 애굽으로 도망하려 하는 자들은 그의 말을 경청해야 했음을 표현한다. 8-13절에서 야훼는 예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하고 애굽 땅에 들어간 이들을 바벨론의 애굽 침략을 통해 심판할 것임을 선포한다. 8-13절의 야훼의 심판의 선포는 다시 한번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이 믿을 만한 것임을 드러낸다.

44:24-30에서 야훼는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을 듣지 않는 애굽 땅에 머물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닥칠 일들을 말한다. 야훼는 자신이 더 이상 그들의 언약의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전쟁과 기근으로 멸절될 것이라고 선언한다.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을 무시한 유대인들에게 다가올 심판에 관한 야훼의 말은 예레미야가 야훼의 선택을 받은 참 선지자임을 드러낸다.

예레미야 26-29장과 34-44장의 수사학적 연구는 예레미야 26-45장이 구약의 선지서들의 다른 단락들과는 달리 예레미야의 예언의 메시지에 대한 사람들의 반대에 대해서 다루는 많은 내러티브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내러티브들에서 사람들의 선지자의 메시지에 대한 반대는 예레미야의 선지자로서의 정통성에 대한 입증으로 연결된다. 사람들의 반대는 (1) 야훼로 하여금 예레미야의 반대자들을 대적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게 하거나 (2) 예레미야 자신이 그가 무고하고 참된 야훼의 선지자임을 언명하게 하거나 (3) 다른 등장인물이나 내레이터로 하여금 예레미야의 야훼의 종으로서의 합법성을 표현하게 한다. 예레미야 26-45장의 최종 편집자(들)는 단락 안에 이러한 내러티브들을 포함시킴으로써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들, 특별히 30-33장의 그의 희망의 말들이 신뢰할 만한 것임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예레미야 45:1-5의 수사학적 분석

45:4-5에서 야훼는 예레미야를 통해 언약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한 그의 계획을 밝힌다. 야훼는 바룩에게 큰 일을 찾지 말라고 명령하며 유다의 모든 사람들에게 재난을 내릴 것이라고 말한다. 예레미야 26-45장의 최종 편집자(들)와 원독자들은 4-5절의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미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음을 알고 있었다. 4-5절의 유다에 내릴 재난에 관한 예언은 원독자들에게 그들 자신의 또는 그들의 조상들의 유다의 멸망과 관련된 충격적인 경험들을 상기시켰을 것이다. 그것은 또한 30-33장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구원의 예언들의 신뢰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5절 후반부에서 야훼는 바룩의 개인적인 구원을 약속한다. 5절의 야훼의 말은 바룩이 예레미야의 협력자였음을 보여주는 45:1, 36:4-19, 43:1-3의 기록들과 함께 효과적으로 예레미야의

예언 사역의 정당성을 입증한다. 26-45장 안의 바룩에 관한 기록들은 야훼가 그가 보낸 선지자인 예레미야의 사역을 신실하게 지지하는 자에게 보상하셨음을 드러낸다. 5절 후반부의 예레미야의 동역자 바룩의 구원에 관한 야훼의 약속은 44장의 예레미야와 그의 예언들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던 유대인들의 심판에 관한 야훼의 약속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5절의 야훼의 약속(“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략물 주듯 하리라”)이 39:18의 예레미야를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준 에벳멜렉의 구원에 관한 야훼의 약속(“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 같이 네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과 유사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에벳멜렉과 바룩의 구원에 관한 야훼의 약속은 소명 내러티브의 예레미야의 구원에 관한 야훼의 약속을 연상케 한다.¹⁹ 심판과 절망의 시대에 예레미야가 야훼의 참 선지자임을 진실로 믿었던 에벳멜렉과 바룩은 희망과 구원의 약속을 받았다. 구약의 선지서들에서 하나님이 선지자의 사역을 지지하는 이의 개인적인 구원을 약속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단락이 찾기 어렵다. 예레미야 26-45장의 최종 편집자(들)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단락 안에 포함시킴으로써 예레미야의 예언들, 특별히 30-33장에 기록된 희망과 회복에 관한 그의 예언들의 진정성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예레미야 26-45장의 첫 번째 섹션(26-29장)의 내러티브들이 예레미야와 그의 대적들 사이의 대립에 관해 다루며 예레미야의 야훼의 선지자로서의 정통성에 주로 집중하는 것과는 다르게 세 번째 섹션(34-45)은 예레미야의 예언 사역의 정통성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의 청중들이 예레미야가 전한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도 중점을 준다. 34장은 노예 소유주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다루고, 35장은 레갑 족속의 그들의 조상의 명령에 대한 순종과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을 대조한다. 36장은 바룩의 두루마리에 적혀진 예언의 말씀에 대한 여호야김 왕의 적대적인 반응에 대해 이야기하고, 37-39장은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그것의 끔찍한 결과를 다룬다. 40-44장은 예루살렘 멸망 후에 유대인 생존자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이야기하고, 45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바룩을 구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다. 그들 자신의 또는 그들의 조상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나라를 잃고 바벨론에 끌려 왔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었던 예레미야 26-45장의 원독자들은 34-45장의 유다 백성들의 순종과 불순종, 그리고 그것의 결과에 관한 반복적인 언급은 언약 백성들의 순종과 그것의 결과로 찾아올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에 관하여 말하는 30-33장의 예레미야의 예언들을 강력하게 되새겨 주었을 것이다.

예레미야 26-45장의 최종 편집자(들)는 “위로의 책”(30-33장)이 예레미야의 사역의 정당성에 주된 관심을 기울이는 내러티브들 뒤에 위치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 집중하는 내러티브들 앞에 위치하는 전략적인 배치를 통해 포로로 끌려온 원독자들에게 “위로의 책”에 기록된 참 선지자 예레미야의 희망의 예언의 말들에 올바르게 반응할 것을 권고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예레미야 26-45장의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문학적인 구조 안에서 예레미야의 예언들이 믿을 만한 것임이 먼저 강조되고(26-29장), 그리고 나서 희망의 메시지가 계시되고(30-33장), 마침내 희망의 메시지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의 중요성이

¹⁹ Hetty Lalleman, *Jeremiah and Lamentations: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Tyndale Old Testament Commentaries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2013), 278.

강조된다(34-45장).

III. 결론

예레미야 26-45장 안에서 30-33장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예레미야의 언약 백성의 미래의 희망과 회복에 관한 예언들은 30-33장을 둘러싸고 있는 전기적인 내러티브들에 의해 효과적으로 강조된다. 예레미야의 야훼의 말씀의 전달자로서의 합법성이라는 주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첫 번째 섹션(26-29장)은 독자들로 하여금 30-33장의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들을 듣기 위한 준비가 되게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섹션(34-45장)은 반복적으로 독자들에게 예레미야의 사역의 정당성은 역사 속에서 입증되었으며 30-33장의 그의 희망적인 말들은 신뢰할 만한 것임을 상기시킨다. 예레미야 26-45장의 최종 편집자(들)는 이렇게 전략적으로 만들어진 문학적 구조를 통해 30-33장을 둘러싼 내러티브들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예언들이 언약 백성들이 신뢰해야 했던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었던 것처럼, 30-33장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예언들도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독자들이 신뢰해야 하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임을 주장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부 성경학자들은 예레미야 26-45장에서 통일성을 전혀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예레미야 26-45장의 내러티브들과 계시들은 어떤 정해진 규칙이 없이 무작위로 배치되었다고 주장한다.²⁰ 하지만 예레미야 26-45장 안의 각 단락의 특징들과 그것에 포함되어 있는 설득과 관련된 요소들에 집중한 본 연구는 예레미야 26-45장이 편집자(들)에 의해 창조된 통일성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낸다. 본 연구는 26-29장과 34-45장 안의 각 내러티브는 예레미야의 선지자로서의 권위를 증명하며 30-33장의 희망의 중심 메시지를 지지함을 보여준다.

예레미야 26-45장의 내러티브들과 계시들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최종 형태의 본문이 아닌 최종 형태의 본문이 만들어지기까지 사용된 문서들의 가상의 복원에 의존하는 일부 성경학자들은 30-33장은 후대에 삽입되었거나 30-33장을 기초로 해서 다른 문서들이 점진적으로 더해져 26-45장이 완성되었으며 30-33장은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내러티브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²¹ 하지만 최종 형태의 본문의 더욱 분명하게 식별되는 요소들을 다루는 본 연구는 30-33장을 둘러싸고 있는 각 내러티브는 30-33장의 예언의 말들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30-33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위로의 책”(30-33장)과 그 책의 바로 앞이나 뒤에 위치한 내러티브들

²⁰ Bright, *Jeremiah*, lix; Robert P. Carroll, *Jeremiah: A Commentary*, Old Testament Library (Philadelphia: Westminster, 1986), 509; Douglas Rawlinson Jones, *Jeremiah: Based on the Revised Standard Version*, New Century Bible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1992), 337; J. Alberto Soggi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From Its Origins to the Closing of the Alexandrian Canon*, trans. John Bowden, 3rd ed., Old Testament Library (Louisville: Westminster, 1989), 341-42을 보라.

²¹ Alexander Rofé, “The Arrangement of the Book of Jeremiah,”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101 (1989): 395, 398; William Lee Holladay, *Jeremiah 2: A Commentary on the Book of the Prophet Jeremiah, Chapters 26-52*,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1989), 22-23; Jack R. Lundbom, *Jeremiah 21-36: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nchor Bible 21B (New York: Doubleday, 2004), 253-54; T. R. Hobbs, “Some Remarks on the Structure and Composition on the Book of Jeremiah,” *Catholic Biblical Quarterly* 34 (1972): 268을 보라.

사이의 주제적인 연결성에 그들의 연구의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나 26-29장과 34-45장의 모든 내러티브들의 공통된 주제에 집중한 본 연구는 30-33장과 그것을 둘러싼 모든 내러티브들은 주제적으로 깊은 연관이 있음을 밝힌다.

히브리 성경의 선지서들의 많은 단락들이 선지자의 예언 사역의 정당성에 관한 말들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예레미야 26-45장은 그것들과는 구별된다. 다른 단락들과는 달리, 예레미야 26-45장은 단락 전반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선지자의 사역의 정당성을 표현한다. 이러한 문학적 독특성은 예레미야 26-45장의 최종 편집자(들)이 예레미야의 예언들, 특별히 나라를 잃고 절망한 원독자들의 삶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30-33장의 희망과 회복에 관한 예언들의 신빙성을 강조하려 했음을 드러낸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예레미야 26-45장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 접근(26-29장[예레미야의 예언 사역의 정당성 입증], 30-33장[희망의 약속], 34-45장[예레미야의 예언 사역의 정당성 입증])에서 긍정적인 예언들을 담고 있는 30-33장이 부정적인 내용의 역사 내러티브들 사이에 배치된 이유가 잘 설명된다.²² 이러한 내러티브들과 계시들의 전략적인 배치는 원독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의 독자들에게 야훼의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전한 희망의 메시지는 진실임을 설득력 있게 표현한다.

참고문헌

- Ackroyd, Peter R. "The Book of Jeremiah—Some Recent Studies."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28 (1984): 47–59.
- Angel, Hayyim. "Jeremiah's Trial as a False Prophet (Chapter 26): A Window into the Complex Religious State of the People." *Jewish Bible Quarterly* 45 (2017): 13–20.
- Aristotle. *Rhetoric*. Translated by W. Rhys Roberts. Modern Library of the World's Best Books. New York: Modern Library, 1954.
- Baumgartner, Walter. *Die Klagegedichte des Jeremia*. Beihefte zur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32. Giessen: A. Töpelmann, 1917.
- Bright, John. *Covenant and Promise: The Future in the Preaching of the Pre-exilic Prophets*. London: SCM, 1977.
- Bright, John. *Jeremiah: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nchor Bible 21. Garden City, NY: Doubleday, 1965.
- Bright, John. "Jeremiah's Complaints: Liturgy or Expressions of Personal Distress?" In *Proclamation and Presence: Old Testament Essays in Honor of Gwynne Henton Davies*, edited by John I. Durham and J. R. Porter, 189–214. Richmond, VA: John Knox, 1970.
- Bright, John. "The Book of Jeremiah, Its Structure, Its Problems, and Their Significance

²² 예레미야 37-44장의 내러티브들이 대체적으로 시간 순서에 따라 배열되어 있고 26-36장이 세 부분(26-29장: 선지자의 예언 사역의 정당성, 30-33장: 희망의 약속, 34-36: 선지자의 예언사역의 정당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은 예레미야 26-45장의 최종 편집자(들)가 본래 하나의 독립된 덩어리였던 26-36장과 예레미야의 사역의 정당성을 표현하는 또 다른 독립된 덩어리들인 37-44장과 45장을 조합하여 A-B-A'의 구조를 통해 30-33장의 희망의 메시지를 더욱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자 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 for the Interpreter.” *Interpretation* 9 (1955): 259–78.
- Bright, John. “The Date of the Prose Sermons in Jeremiah.”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70 (1951): 15–35.
- Brueggemann, Walter. “A ‘Characteristic’ Reflection on What Comes Next (Jeremiah 32:16–44).” In *Prophets and Paradigms: Essays in Honor of Gene M. Tucker*, edited by S. B. Reid, 16–32.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Supplement Series 229.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6.
- Brueggemann, Walter. “Jeremiah’s Use of Rhetorical Questions.”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92 (1973): 358–74.
- Butterworth, Mike. *Structure and the Book of Zechariah*.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Supplement Series 130. Sheffield: JSOT Press, 1992.
- Callaway, Mary Chilton. “Telling the Truth and Telling Stories: An Analysis of Jeremiah 37–38.” *Union Seminary Quarterly Review* 44 (1991): 253–65.
- Carroll, Robert P. “Elijah-Elisha Sagas: Some Remarks on Prophetic Succession in Ancient Israel.” *Vetus Testamentum* 19 (1969): 408–14.
- Carroll, Robert P. *From Chaos to Covenant: Prophecy in the Book of Jeremiah*. New York: Crossroad, 1981.
- Carroll, Robert P. *Jeremiah: A Commentary*. Old Testament Library. Philadelphia: Westminster, 1986.
- Chisholm, Robert B., Jr. *Handbook on the Prophets*. Grand Rapids: Baker, 2002.
- Clements, Ronald E. *Jeremiah*. Interpretation. Atlanta: John Knox, 1988.
- Craigie, Peter C., Page H. Kelley, and Joel F. Drinkard Jr. *Jeremiah 1–25*. Word Biblical Commentary 26. Dallas: Word Books, 1991.
- Fox, Michael V. “The Rhetoric of Ezekiel’s Vision of the Valley of the Bones.” *Hebrew Union College Annual* 51 (1980): 1–15.
- Gitay, Yehoshua. *Prophecy and Persuasion: A Study of Isaiah 40–48*. Forum Theologiae Linguisticae. Bonn: Linguistica Biblica, 1981.
- Gitay, Yehoshua. “Rhetorical Criticism.” In *To Each Its Own Meaning: An Introduction to the Biblical Criticisms and Their Applications*, edited by S. L. McKenzie and S. R. Haynes, 135–49. Louisville: John Knox, 1993.
- Habel, Norman C. *Jeremiah, Lamentations*. Concordia Commentary. St. Louis: Concordia Publishing House, 1968.
- Habel, Norman C. “The Form and Significance of the Call Narratives.”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77 (1965): 297–323.
- Hobbs, T. R. “Some Remarks on the Structure and Composition of the Book of Jeremiah.” *Catholic Biblical Quarterly* 34 (1972): 257–75.
- Holladay, William Lee. “A Fresh Look at ‘Source B’ and ‘Source C’ in Jeremiah.” *Vetus Testamentum* 25 (1975): 394–412.
- Holladay, William Lee. *Jeremiah: A Fresh Reading*. New York: Pilgrim, 1990.
- Holladay, William Lee. “Jeremiah and Moses: Further Observations.”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85 (1966): 17–27.
- Holladay, William Lee. *Jeremiah 1: A Commentary on the Book of the Prophet Jeremiah, Chapters 1–25*. Hermeneia. Philadelphia: Fortress, 1986.
- Holladay, William Lee. *Jeremiah 2: A Commentary on the Book of the Prophet Jeremiah, Chapters 26–52*.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1989.
- Howard, David M., Jr. “Rhetorical Criticism in Old Testament Studies.” *Bulletin for Biblical*

- Research* 4 (1994): 87–104.
- Huey, F. B. *Jeremiah, Lamentations*. New American Commentary 16. Nashville: Broadman, 1993.
- Hyatt, James Philip. “The Book of Jeremiah.” In *The Interpreter’s Bible*, edited by George Arthur Buttrick et al., vol. 5, 775–1142. New York: Abingdon, 1956.
- Jones, Douglas Rawlinson. *Jeremiah: Based on the Revised Standard Version*. New Century Bible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1992.
- Kaiser, Walter C., Jr. “The Old Promise and the New Covenant: Jeremiah 31:31–34.”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15 (1972): 11–23.
- Kautzsch, E., ed. *Gesenius’ Hebrew Grammar*. Translated by A. E. Cowley. 2nd English ed. Oxford: Clarendon, 1910.
- Lalleman, Hetty. *Jeremiah and Lamentations: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Tyndale Old Testament Commentary.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2013.
- Lewin, Ellen Davis. “Arguing for Authority: A Rhetorical Study of Jeremiah 1:4–19 and 20:7–18.”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10 (1985): 105–19.
- Lundbom, Jack R. “Baruch, Seraiah, and Expanded Colophons in the Book of Jeremiah.”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36 (1986): 89–114.
- Lundbom, Jack R. “Delimitation of Units in the Book of Jeremiah.” In *Impact of Unit Delimitation on Exegesis*, edited by Raymond de Hoop, Marjo C. A. Korpel, and Stanley E. Porter, 146–74. Boston: Brill, 2009.
- Lundbom, Jack R. *Jeremiah: A Study in Ancient Hebrew Rhetoric*. 2nd ed. Winona Lake, IN: Eisenbrauns, 1997.
- Lundbom, Jack R. *Jeremiah: Prophet like Moses*. Eugene, OR: Cascade, 2015.
- Lundbom, Jack R. *Jeremiah 1–20: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nchor Bible 21A. New York: Doubleday, 1999.
- Lundbom, Jack R. *Jeremiah 21–36: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nchor Bible 21B. New York: Doubleday, 2004.
- Lundbom, Jack R. *Jeremiah 37–52: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nchor Bible 21C. New York: Doubleday, 2004.
- Lundbom, Jack R. “Poetic Structure and Prophetic Rhetoric in Hosea.” *Vetus Testamentum* 29 (1979): 300–8.
- Muilenburg, James. “Baruch the Scribe.” In *Proclamation and Presence: Old Testament Essays in Honour of Gwynne Henton Davies*, edited by John I. Durham and J. Roy Porter, 215–38. Richmond, VA: John Knox, 1970.
- Muilenburg, James. “Form Criticism and Beyond.”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88 (1969): 1–18.
- O’Connor, Kathleen M. “‘Do Not Trim a Word’: The Contributions of Chapter 26 to the Book of Jeremiah.” *Catholic Biblical Quarterly* 51 (1989): 617–30.
- O’Connor, Kathleen M. “How Trauma Studies Can Contribute to Old Testament Studies.” In *Trauma and Traumatization in Individual and Collective Dimensions: Insights from Biblical Studies and Beyond*, edited by Eve-Marie Becker, Jan Dochhorn, and Else K. Holt, 210–22. *Studia Aarhusiana Neotestamentica* 2.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4.
- O’Connor, Kathleen M. *Jeremiah: Pain and Promise*. Minneapolis: Fortress, 2011.
- O’Connor, Kathleen M. *The Confessions of Jeremiah: Their Interpretation and Role in Chapters 1–25*.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Dissertation Series 94. Atlanta: Scholars

- Press, 1987.
- Rahlf's, Alfred, ed. *Septuaginta*, 2nd rev. ed.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06.
- Rofé, Alexander. "The Arrangement of the Book of Jeremiah."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101 (1989): 390–98.
- Skinner, John. *Prophecy and Religion: Studies in the Life of Jeremia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30.
- Soggin, J. Alberto.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From Its Origins to the Closing of the Alexandrian Canon*. 3rd ed. Old Testament Library. Louisville: Westminster, 1989.
- Stulman, Louis J. *Jeremiah*. Abingdon Old Testament Commentaries. Nashville: Abingdon, 2005.
- Stulman, Louis J. "Jeremiah as a Messenger of Hope in Crisis." *Interpretation* 62 (2008): 5–21.
- Stulman, Louis J., and A. R. Pete Diamond. *Jeremiah (Dis)placed: New Directions in Writing/Reading Jeremiah*. Library of Hebrew Bible/Old Testament Studies 529. New York: T & T Clark, 2011.
- Thiel, Winfried. *Die deuteronomistische Redaktion von Jeremia 1–25*. Wissenschaftliche Monographien zum Alten und Neuen Testament 41.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73.
- Wuellner, Wilhelm. "Where Is Rhetorical Criticism Taking Us?" *Catholic Biblical Quarterly* 49 (1987): 448–63.
- Wynn, Kerry H. "Jeremiah 31:1–6." *Interpretation* 68 (2014): 184–86.
- Ziegler, Joseph, ed. *Jeremias Baruch Threni Epistula Jeremiae*. 3rd ed. Septuaginta: Vetus Testamentum Graecum 15.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6.
- Zimmerli, Walther. "Visionary Experience in Jeremiah." In *Israel's Prophetic Tradition: Essays in Honour of Peter R. Ackroyd*, edited by Richard Coggins, Anthony Phillips, and Michael Knibb, 95–118.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